



KIA 타이거즈의 루키 김민주가 18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볼파크에서 진행된 자체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루키 김민주 'KKK쇼' 눈에 띄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진짜 경쟁'이 시작됐다. 호주 캔버라에 스프링캠프를 마련한 KIA가 18일 자체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이번 스프링캠프의 첫 연습경기가 시작되면서 선수들의 경쟁도 본격화됐다. 예정보다는 한 박자 늦은 시작이다. KIA는 14일 캠프에서 첫 라이브 훈련을 소화한 뒤 17-18일 두 차례 자체 연습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차례 연습경기가 예정된 일본 오기나와로 건너가 2024시즌 밀그램을 완성할 계획이

자체 연습경기서 2이닝 소화... 최고 구속 141km "직구·슬라이더 자신있다... 힘으로 상대 제압할 것"

었다. 하지만 첫 라이브가 예정됐던 14일, 간밤에 내린 비로 경기장 사정이 좋지 않아 라이브 훈련이 미뤄졌다. 15일 휴식일을 보낸 선수단은 16-17일 라이브 훈련을 하면서 몸을 풀었고, 18일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블랙팀과 레드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활동하와 장민기가 각각 선발로 나서 2이닝씩 소화했다. 이어 블랙팀은 윤중현-곽도규-유승철-이준영-조대현으로 마운드를 운영했다. 레드팀에서는 장민기에 이어 김민주-김대우-박준표-김기훈-이형

범이 순서대로 마운드에 올랐다. 이날 경기는 블랙팀의 4-3 승리로 끝났다. 이우성이 블랙팀의 4번 타자 겸 1루수로 나서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팀의 패배에도 마운드에서는 김민주에 눈길이 쏠렸다. 김민주는 고명성-한승택-주효상을 상대해 'KKK쇼'를 펼쳤다. 3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우는데 필요한 공은 10개에 불과했다. 김민주의 강점으로 꼽는 직구를 7개 뿌렸고, 2개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선보였다.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1km를 기록했다.

강릉영동대 출신의 김민주는 2024 신인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지명을 받은 루키다. KIA는 지명 회의 뒤 "직구 움직임이 좋고 변화구의 완성도가 높아 불펜진 즉시 전력감"이라고 소개했고, 오기나와 마무리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김민주는 캔버라 캠프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며 어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민주는 "첫 타에는 긴장 많이 했다. 어색하고 뭘 해야할 지도 모르고, 나만 어리버리했던 것 같다. 그래도 도구, 영철이가 옆에서 많이 챙겨줘서 편하게 적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첫 불펜 피칭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감도 잡히고 하니깐 괜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KIA의 탄탄한 마운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에게는 모든 시간이 '배움'이 되고 있다. 김민주는 "처음에는 이름만 들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많이 신기했다. 선배들이 운동하기 전에 뭘 하고, 공 던지기 전에 뭘 하는지 보고 있다. 나한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보고 있다. 같은 사이드업인 박준표, 임기영 선배님을 유심히 봤다"고 말했다. 자신의 모습에 선배들의 강점을 입혀가고 있는 김민주는 "힘"으로 프로 무대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그는 "마운드에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다.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 모습이다. '무조건 직구로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크다.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좋아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슬라이더도 자신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을 좋아한다. 통할 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있게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외야수 이우성 '중대한 결심' "1루, 내가 맡겠다"

1루수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이우성이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볼파크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공격력 높여 타격 업그레이드 노력... 역대 연봉보다 부상없이 뛴 126경기 더 값져"

KIA 타이거즈 이우성에게는 '1억 3000'보다 '126'이 더 크다. 이우성은 프로 12번째 해인 올 시즌 처음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 '부상 병동' KIA 타선을 굳게 지켜준 이우성은 5500만원에서 136% 상승한 1억 3000만원에 도장을 찍으면서 처음 역대 연봉을 받게 됐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우선 생각하는 목표이자 상징적인 '역대 연봉'을 이루게 됐지만 이우성은 "돈을 벌려고 야구를 하는 것이지만 연봉이 낮았을 때도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와이프도 현명한 사람이라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웃었다. 1억 3000이라는 연봉보다 이우성에게 더 값진 것은 지난 시즌 출전한 경기 수 '126'이다. 이우성은 "1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웠다. 경기를 하다면서 연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신경을 써 본 적이 없

다. 어떻게 하면 1군 경기를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1군에서 안 다치고 경기를 뛸 수 있는 것, 그게 좋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의 간절함을 아는 이우성은 지난 11월 일본 오기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 중대한 결심을 했다. 쟁쟁한 KIA 외야가 아닌 '무주공산'인 1루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KIA 입장에서는 이우성이 1루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팀 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오기나와에서부터 착실하게 1루수 준비를 했던 그는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프링캠프에서도 미트를 끼고 수비 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월 새 없이 오가는 사인을 익히고,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는 18일 진행된 스프링 캠프 자체 연습경기에서도 블랙팀의 5번 타자 겸 1루수로 나서 실전을 소화했다. 익숙지 않은 포지션인 만큼 '경험' 말고 지름길이

없는 만큼 이우성은 연습과 실전으로 1루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각오다. 변화의 시즌이지만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우성은 타격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 이우성은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는데 캠프에서의 페이스 이런 걸 잘 모르겠다. 내 페이스가 어떤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부분을 지난해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목표"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더 쓸 수 있을지, 강하게 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 타구 스피드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 밸런스로 강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며 "타구 스피드가 빨라야 공이 빠질 확률도 높아진다. 내 밸런스를 가지고 힘을 어떻게 앞으로 더 전달할 수 있는지 신경 쓰고 있다"고 타격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향을 이야기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22연패 페퍼스 '탈출구가 필요해'

정관장에 1-3패

이번에도 새로운 연패 기록을 쓴 페퍼스에게 탈출구가 시급해졌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16일 페퍼스 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전에서 세트 스코어 1-3 (13-25 25-18 19-25 15-25)패하며 22연패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직전 경기인 지난 10일 IBK 기업은행전에서 프로야구배구 역대 최다인 21연패 신기록을 썼고, 이번엔 '상대전적 전패' 상대인 정관장에게 또다시 지며 22연패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다. 계속해서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있는 페퍼스가 현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선무는 '페퍼스만의 플레이' 구축이다. 그동안 페퍼스는 그들의 특별한 경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시즌을 치러왔다. KBS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자 광주지역배구단 유치 추진단 구성원이었던 조선대학교 김민철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페퍼스는 페퍼스만의 색깔이 그동안 없었다"며 "조직력을 가지고 끈끈한 배구를 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또 세터를 중심으로 배구를 하는 팀도 있고, 또 한 선수에게 공격을 전달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은 이 한 선수가 공격을 잘 때리기 위해서 잘 서포트 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다. 배구는 플레이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무국 내 배구 전문성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졌다. 앞서 페퍼스는 V-리그 2023-2024시즌을 앞

둔 트레이드에서 공격수 박정아를 영입한 뒤 보호선수 명단에서 세트 이고은을 보호선수로 묶지 못한 한 차례 도로공사로 내주면서 다시 데리고 오는 해프닝을 겪었다. 페퍼스는 이고은을 재영입하면서 새 시즌 신인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내줬고, '최대어' 김세빈을 데려올 기회를 놓쳤다. 당시 페퍼스는 '주먹구구식'으로 구단을 운영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사무국 운영 방식은 선수 관리보다는, 행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무국이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코칭스태프의 '한국형 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관건이다. 많은 연습량을 통해 체화된 조직적인 플레이로 승부를 내는 한국 배구의 특성상 개인적·자율적 훈련보다는 '한팀'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 주포 야스민의 완전한 회복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야스민은 지난 3일 한국도로공사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막바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코트를 빠져나간 바 있다. 이번 정관장전에서는 4세트 중반 작지 과정에서 발목에 부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페퍼스는 이번 시즌 7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 끝이 아닌 만큼 페퍼스에게는 22연패라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페퍼스가 보여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기 기자 jinggi@



AI페퍼스 야스민(왼쪽)이 지난 1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전에서 작지 과정에서 발목에 부상을 입고 처치를 받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